

혁명

정리하고/비정규직 철폐!
재벌 몰수 국유화(사회화)!
자본주의 철폐!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혁명당 건설!
노동자권력 쟁취!

■ 발행일 : 2012년 12월 13일(목) ■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블로그 : blog.jinbo.net/wrp ■ E-mail : wrp@jinbo.net

12월 15일 “세상을 뒤엎는 정치대회”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가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선 기간 동안의 투쟁을 더욱 힘차게 펼쳐야 한다. 대선 기간 동안의 투쟁을 얼마나 더 끌어 올리느냐에 따라 대선 이후의 투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달려 있다. 그동안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은 부족한 시간과 자원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투쟁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물론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그 외에 이유는 너무 많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은 여기까지 달려왔으며 아직 더 달려가야 한다. 지금은 오직 있는 힘을 다해 하나라도 더 주장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조직해야 한다.

12월 15일 “세상을 뒤엎는 정치대회”를 기필코 성사시키자. 지금까지의 선거투쟁을 하나로 모아 내자. ‘세상을 뒤엎는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이 무엇이며, 왜 시작했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시 한 번 투쟁으로 보여주자. 지금까지 모자랐던 것,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이 대회에서 진전시켜내자. 12월 15일 “세상을 뒤엎는 정치대회”를 통해 12월 18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대선투쟁을 더 힘차게 가져갈 수 있는 동력과 의지를 확보하자.

정치대회를 반자본주의 투쟁의 장으로

자본가정당들이, 박근혜와 문재인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놓고 입씨름을 하고 있다. 저들은 지금 자본주의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말장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지금 자본주의 위기를 말하고 지금부터 펼쳐질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이다. 정말 심각한 위기가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다. 노동자계급에게 위기는 벌써 닥친 문제다. 지금도 위기의 한 복판에서 고통 받고 있다. 저들이 위기를 말하는 것은 단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노동자계급을 향해 공격하겠다는 것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말하는 것은 바로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에 또 다시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노동자계급을 옥죄기 위한 사전 포석이자, 정지작업을 하는 것일 뿐이다.

이정희 후보는 TV 토론에서, 그렇다 ‘재벌을 해체하지는 것이다’라고 매우 단호하게, 매우 의미심장하게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자본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비판받아 마땅하며, 처벌받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독점자본이 사라지는가. 그러냐고 노동자계급의 처지가 달라지는가. 재벌체제가 아닌 나라들에서 노동자계급은 처지가 다른가. 총수자본주의가 아니라 주주자본주의는 관찮은가. 문어발식 경영이 아니라 전문경영인 체제면 뭐가 달라지는가. 자본주의 위기 앞에서, 즉 이윤율이 떨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자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현금을 천문학적으로 쌓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 사이의 인수합병과

그에 따른 대량해고를 막겠 휘두르는 것을 통해 이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이 주주자본주의며, 전문경영인 체제다. 아니 도대체 어떤 자본주의면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가.

노동자계급은 ‘재벌 몰수 국유화(사회화)’를 주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위기에 대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처방이자, 대안이다. 재벌(독점자본)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심장이자 기관차다. 독점자본에게 규제를 조금 가해 중소자본에게로 이윤(잉여)의 일부를 이전한다고 해도, 물론 그조차 결코 쉽지 않지만, 독점체제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 반대다. 독점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초국적 차원에서 독점은 강화되고 있다. 초국적(독점)자본만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니 그들 사이의 경쟁에서 초국적자본마저 자유롭지 않다. 자본이 집적하고 집중하는 것을 자본주의 자체가 강제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런 경향을 저지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독점화 경향이 노동자계급에게는 전망이다. 그건 바로 생산의 사회화/지구화가 점점 더 강화,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생산의 사회화/지구화가 진전되는 것은 새로운 사회(사회주의)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그 결과물을 소수 자본가가 독점(독재 지배)하는 것이 문제로 될 뿐이다. 세상을 소생산체제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가 말하는 반자본주의란 생산의 사회화/지구화를 멈추자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 즉 노동의 산물을 소수 자본가가 강제로,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체제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가에게, 따라서 자본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이 체제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장악한 결과물(생산수단)을 노동자계급이 역시 강제력을 통해 몰수해야만, 그럴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금 정세에서 반자본주의는 ‘재벌 몰수 국유화(사회화)’로 구체화/집중되어야 한다. 이 요구는 정리하고/비정규직 철폐를 최종적으로 가능케 하기 위한 전제이자, 선제 조치이다.

정치대회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전망을 쟁취하는 투쟁의 장으로

노동자계급이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핵심적 이유는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 독자의 정치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정당에 의존하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통해서서는 불가능하다. 그들과 정치연대나 정책연대를 하거나 정책협약을 맺는 방식으로는 그들 자본가정당을 조금도 위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지속, 강화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한국에서의 진보정당 15년 역사가 이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단지 한국에서만이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사민주의 정당의 역사 또한 그러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서구의 사민주의 정당은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노동조합의 지지와 지원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런 결과를 낳았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서구의 사민주의 정당 정도에 다가가는 것조차 어렵다. 지금의 자본주의 위기가 그조차 허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대선정국을 말하는 TV프로그램에서 한 패널은 ‘그래도 친노동자적인 김대중 정권에서의 노동유연화, 노무현 정권에서의 한미FTA’가 역설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불편한 진실’의 한 단면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는 노동자에게 고통분담을 말하지 않는다. 그냥 고통을 안겨 준다. 문재인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결과는 전자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후자는 노동자에게 적지 않은 압력이 될 수 있다. 노동자 사이의 단결과 투쟁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대타협을 현재의 진보정당이나 민주노총은 거부할 의사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 아니 그들이 앞장서 노동자계급을 유인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를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지배계급으로부터 결코 과격하지 않다는 신임을 받고자 하려들 것이 뻔하다.

지금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심지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을 향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조차 한다. 일부 현장조직들은 조합주의 높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오직 노동조합 집행부를 장악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지 오래다. 집행부를 장악해야 하는 이유, 근거가 노동자계급 독자의 투쟁과 정치를 강화하려는 것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진보정당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시도를 하기보다 그를 핑계로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 속에는 노동자정치도 포함되어 있다. 부르주아 정치, 개량주의 정치와 노동자정치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구별하려는 의지도 퇴색하고 있다. 노동자정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쌓여 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은 바로 이 같은 현실의 한 복판에 놓여 있다. 그 때문에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전에 이 같은 상황을 모르지 않았다. 오히려 ‘선투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출발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가 더 더디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는 인식과 판단을 한 것이다. 12월 15일 정치대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극복시켜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야 하며, 어떻게 해야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말해야 한다. 야권연대/정권교체에 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저지선을 쳐야 한다. 노동자정치의 전망을 밝혀야 하며, 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 지배계급에게 지금 대안은 없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을 대안으로 만들자.

혁명

정권교체가 아니라, 반자본주의 투쟁/정치의 전망을 열어야 한다

‘세상을 뒤엎는’에서의 세상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를 말한다. 그렇다. 뒤엎어야 할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다. ‘재벌 몰수 국유화(사회화)’는 현실의 자본주의를 체현하고 있는 독점자본, 그 독점자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몰수하지는 것이다. 노동자가 (정치)권력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은 독점자본을 몰수하기 위한 물리적, 강제력을 노동자가 손에 쥐자는 것이다. 제국주의와의 투쟁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은 자본주의 철폐는 일국을 넘어 세계적(지구적) 차원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을 위해 전 세계 노동자계급은 일차적으로 자국 지배계급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해야 하며 거기서 출발하여 노동자계급주의(연대)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가 비록 그 형식에서는 각국(개별 국민국가)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 실상은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본의 국적과 관계없이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는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단지 각국의 자본이 자본 사이의 경쟁을 빌미로 자국 노동자계급을 억압, 착취하는 구실로 삼고 있을 뿐이다. ‘국익’, ‘국가경쟁력’ 등이 그것이다. 노동자계급에게 ‘국익’, ‘국가경쟁력’이란 노동자를 옹호하는 족쇄일 뿐이다. 노동자를 억압, 착취하는 본체는 자본이며 국가는 이를 강제하기 위한, 때로는 그러한 자본의 실상을 은폐하기 위한 특정한 제도(부르주아 정치질서)에 불과하다. 국가는 자본 바깥에 또는 사회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운동의 연속 위에 있으며 자본운동의 양상에 따라 끊임없이 그 색깔을 바꾸고 있다. ‘자유방임국가,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국가’ 등이 그것이다. ‘제국주의 나라(국가), 식민지 나라(국가)’ 등은 자본 사이의 경쟁과 대립이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의 반영(결과)물이다.

정치는 경제의 연속이며, 경제의 집중점이다. (부르주아)정치를 통해 경제(자본주의)를 제어, 통제할 수 없다. 오히려 경제가 정치를 규정한다. ‘권력이 시장(자본)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자본 사이의 경쟁과 대립은 국가 사이의 대립과 경쟁으로 발전한다. 국가 사이의 대립과 경쟁은 다시 정치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서 정치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 열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의 경쟁과 대립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자본주의 위기가 계속되고, 증폭되는 한 긴장 고조는 멈출 수가 없다. 북 또한 미국제국주의가 가하는 적대정책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긴장을 유발하는 당사자/책임자이기도 하다. 그렇긴 해도 노동자계급은 일차적으로 미국의 적대정책을 우선적으로 비판, 반대해야 한다. 한국 지배계급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 적극 가담하고 있으며 동북아 군비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북의 지배계급이 말하는 체제 수호도, 한국 지배계급이 말하는 안보도 남북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모두 허물어뜨려야 할 과제이다.

지금 대선정국에서 박근혜와 문재인 사이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판세가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박근혜를 떨뜨려야, 즉 문재인을 지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서가 퍼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연장일 뿐인 박

근혜(새누리당) 정권이 등장하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고 싶은 심정에서이다. 문재인이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연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현실에서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진보정당/민주노총 개량주의 관료지도부가 노동자계급을 이런 처지로 몰고 왔기 때문이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이 아직은 대안 세력으로까지 성장,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투쟁력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치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각자 문제해결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동안 노동자투쟁에 함께 한 세력 중에 이런 현실에 타협/굴복하고, 단지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자는 하나하나한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문재인 지지를 적극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는 선거가 노동자계급에게 미치는 영향을 별 것 아닌 듯이 말하면서 정세 대응을 미루거나 회피한 채 원칙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일부는 구체적인 선택을 해야 할 정세에서 매우 포괄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들고 나와 장광설을 늘어놓거나, 반대로 매우 지엽적이고 너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기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서조차 동요가 일고 있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현실은 늘 모순적으로 존재한다. 모순이 겹쳐서 일어난다. 무 자르듯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정세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혁명적 정세에서조차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운동이란, 지도력이란 바로 이 같은 복잡한 정세를 간파하고 노동자계급이 나아가갈 시대의 정세적 과제를 명료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 단지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과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데 있다. 대중에게서 변화는 단계적으로만이 아니라 역동적으로도 일어난다. 물론 그 속에서도 불균등성이 각각 존재한다.

그러나 단계론을 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단계론은 대부분 개량주의 정치의 특징이다. 이들에게서 단계는 거의 인위적, 기계적으로 설정된다. 개량주의 세력은 자신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대중이 앞서 나가거나 급진화되는 것을 가로 막는다. 그러면서 그 핑계를 대중에게 돌린다. 때때로 혁명주의 세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위에서도 맥락은 다르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등장한다. 이들의 경우는 전위와 대중을 기계적, 자의적 따라서 관념적(초역사적)으로 구분한다. 자신만이 전위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전위와 대중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전위가 늘 모든 사태를 장악할 수도 없다. 전위는 구체적 정세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라야 한다. 전위란 이를 자각한 자를 말할 따름이다. 전위는 무오류 집단이 아니다. 의식적으로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뿐이다.

지금 문재인을 지지(그것이 아무리 비판적 지지라고 해도)하지는 것은 반노동자적 선동이다. 정치적 기회주의의 전형이다. 노동자계급 속에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차라리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이 그보다 낫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런데 적어도 문재인이 대안이 아니라고 의식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갈등하고 있는 노동자를 향해, 아무리 그럴싸한 단서/당부를 붙인다고 해도, 그 갈등을 손쉽게 놓아버리게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통진당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라면 ‘노동자대통령 선거

투쟁’을 최소한 비판적으로라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무엇을 비판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맞다. 철갑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김소연 후보) 지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 노동자들의 투쟁을 함께하고 있는 세력이면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김소연후보) 지지를 꺼리는 것은 이를 배반적이며 자가당착이다.

이러한 자가당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정세에 대한 불철저한 이해 때문이다. 지금 정세의 성격은 자본주의 철폐/사회주의 건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중적 차원에서도 반자본주의로 진입하고 있거나 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명백하다. 개량주의가 아니라면 민주주의 차원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끝났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넘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반대가 세계적 대세이자, 추세로 이미 들어섰다. 한국의 정세도 다르지 않다. 박근혜조차 좌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유다.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투쟁의 결과다. 박근혜가 당선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과 박근혜를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문재인이 당선된다고 해서 노동자투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그 어떤 보장도 없다. 문재인을 지지하고 나서 문재인과 맞서 싸우자고 주장하는 것은 대중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자를 왜곡시키거나, 수동화시킬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아니 이미 현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또 하나는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에 대한 왜곡 또는 정파적 접근 때문이다. ‘선거는 선거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이 별 것 아닌 양 하고 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김소연후보)이 투쟁하는 노동자들 속에서 하고 있는 역할, 하고자 하는 역할에 대해 애써 눈감고 있다. ‘선투본’이야말로 온몸으로 ‘선거는 선거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단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 투쟁하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 활동가들이 분명히 나서야 한다. 야권연대/정권교체가 아니라 노동자의 정치적 독립과 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침없이 주장해야 한다. 정권교체 여부에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반자본주의 투쟁/정치를 지금, 여기서부터 실천하자고, 노동자계급이 투쟁과 정치의 주체로 나서자고 호소해야 한다. 자신이 머뭇거리면서 혼란에 빠진 노동자를 설득할 수 없다. 물론 단지 일방적 주장만을 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토론하고 소통해야 한다. 자신이 먼저 토론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조직하고, 강화해야 한다. ‘준비된 활동가’로 거듭나야 한다. **혁명**

12월 15일(토)
모이자, 광화문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5년마다 반복되는 투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의 투쟁뿐입니다!
12월 15일(토) 14시 광화문 유세로 모입니다!